

10월 15일(화)

본문: 민수기 20장, 27:12-17, 신명기 34:7-8

제목: 엄마를 죽여라!

모세와 아론의 프리바 물가의 사건

● **들어가는 시**

시 한 수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딸을 위한 시/마종하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에서 관찰하는 태도를 낳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학화 포럼을 하는 동기가 사랑이라면 그것은 관찰하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고 사랑의 안목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보는 일일 뿐 아니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안목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의 마음일 것입니다.

● **광야의 목적-순종과 수용**

광야를 굳이 지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창

조가 광야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둘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순종이요 다른 하나는 수납 혹은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데 있어서는 둘의 뜻이 비슷합니다, 다만 순종은 적극적으로 따르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수용은 어떤 처분이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 다 명령하신 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런 줄 알면서도 이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그런 조건이라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의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무사히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하고, 내 욕망과 배치되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될 리 없고, 잘 되다가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곧 돌아가고 싶어지고 다 팽개치고 싶어집니다. 즐겁게 자원해서 순종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순종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야지 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만 참 순종이라는 말은 사변적입니다. 마음이 안 내키고 몸이 잘 안 움직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옳다는 것만은 알기에 억지로 의지를 거슬러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홍어처럼, 두리안처럼)

그렇게 순종의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체질이 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형성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만의 어떤 질서가 생기고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있는지에도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잘 되는 것이 '수용'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쉬워지고 타인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둡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우리는 한 세계관을 익히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거센 반대도 만나고 방해도 만나고 비난과 오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에 맞서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꾸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저 당하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고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길다' '수용한다' '믿는다' 하는 말에는

항상 '인내'(endurance)나 '참음(회복탄력성)'(resilience)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전모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뜻과 상관 없이 흘러가도록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지혜이고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수용의 지혜를 배우는 데 꼭 필요한 영적 지식이 바로 '역설'입니다. 무슨 일에도 늘 빛과 그림자가 같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통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없고, 그림자를 갖지 않는 영광은 없고, 영광을 갖지 않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 없는 고통이나 상처나 상실도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 상처, 상실, 아픔을 쓸모 없게 만들 수는 있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빛과 그림자, 선과 악, 의와 불의, 추함과 깨끗함 사이 어딘가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우리는 둘 모두를 품은 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진리는 온전하지 않은 깨어진 진리이고, 선을 추구하지만 그 선은 악에 의해 어

느 정도는 오염된 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만이 절대 복음이거나 혹은 '순'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 모두를 가지고 우리의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이나 이 역사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학화의 과정은 바로 이 깨어진 진리라는 실존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질서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광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더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연연해하지 않고 여유를 누리고, 조바심내지 않고 넉넉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든든하고, 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소박하고, 쫓거나 쫓그라들지도 않고 의연한 사람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런 마음이 창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은 채 교회 안에 몸만 담고 산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설령 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그 가나안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맞서 싸우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편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 모세의 범죄와 선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는 본받아야 할 인물의 예로도 나오고, 동시에 충격적이게도 본받지 말

아야 할 사람의 모범으로도 나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의 예였기 때문에 그 역시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광야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므리바 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하나만으로 그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죽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거론하십니다.

"...24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므리바 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민 20:22-24)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었다고 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는 욕망이 다툽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순간 자신들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에서 다시 이 사건을 거론하십니다. 그의 지도자 역할을 끝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므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 27:12-14)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의 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권능이고 다른 목표를 향해 사용되는 권능임을 자신들이 권능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와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야 1세대였는데,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세와 아론의 이 잘못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 될 만큼 심각한 죄였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모세와 아론의 죄를 다루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1) 지도자의 중요성

그들이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혹독하게 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순간, 백성들은 모세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에 올라간 후 아론을 부추겨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만을 대변하기로 맘먹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을 마음이 없다면,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파멸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 살 만큼의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취약성도 받고 고난도 받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지도자, 하나님이라는 왕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백성들의 죄와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과시한 모세의 죄는 같았습니다. 둘은 모두 하나님을 지웠습니다.

40년 전에는 아낙 자손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자신들을 너무 큰 존재로 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지웠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보다 높였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2) 지도자의 상대화

그만한 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주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상황을 상상해보십시오. 앞으로 창창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 지도자를 상대화 하고 하나님을 절대화 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도 취약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 모세의 반응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모세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잘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신 3:23-25)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요청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순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었기 때문입

니다.

“그만 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 “다시”라고 하신 것을 보면, 처음 요청한 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여지를 남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가 할 일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욕망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라야 우리의 사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적인 욕망을 유보해도 좋고 심지어 철회해도 좋은 이유를 과연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정당한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민 27:15-17)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병상에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얼른 죽어야 네가 편할 것인데...너 고상시켜서 미안하다...” 어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두 마음입니다.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진실하고, 더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고 싶은 마음도 진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수납하고 싶은 것도 진심입니다.

- **늙어서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해서 죽은 모세**

신명기의 설교를 다 끝내고 결국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신 34:5-6).

“5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6 모압 땅 벳브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고, 요셉은 자신의 뼈라도 갖고 가서 세겜 땅에 이장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마저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신은 곧장 승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묘는 순례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묻히게 하셨고, 그마저도 그 소재지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철저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7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스무 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8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다.”

눈에 빛이 살아있고 기력이 정정했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할 수도 있고, 모세가 죽음을 수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만이 아니라, 자리도, 영향력도, 돈도, 명예도, 그렇게 그 위세가 대단할 때, 기력이 정정할 때, 아직 쓸모가 충분할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때 나의 신앙이 증명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아직 때가 다 차지 않은 듯할 때, 아직은 더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듯할 때 떠났지만, 신명기는, 아니 하나님은 그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세의 청을 거절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만 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이제 쉬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10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11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1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살아있을 때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이후에는 퇴장과 죽음을 수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존재와 부존재 모두를 통해 그는 하나님만 드러냈고 그래서 두고두고 잊힐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 나가는 말

가장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죽음,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나라, 보고 싶은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같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는 죽음,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 죽음으로 그 이름이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죽음, 그래서 사실상 죽었지만 죽지 않는 죽음이라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축복은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축복을 누려도, 그 축복은 여전히 목마른 축복이고 배고픈 축복일 수밖에 없고, 더 온전한 축복을 기다리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온전한 축복은 미래의 일이며, 믿음의 영역입니다. 또 모세는 모세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자신학화 모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보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갖은 욕망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지운다면 사라져야 합니다. 잊혀져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시신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묻힌 곳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신학의 유산들, 나의 자리, 영향력 부정하는 일, 상대화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은 진리와 삶에 오늘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이 자신학화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죽지만 동시에 죽지 않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역설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도

아이는 하루 종일 색칠공부 책을 칠한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강물도 있다

아이는 금 밖으로 자신의 색칠이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누가 그 두려움을 가르쳤을까?
금 밖으로 나가선 안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비도 꽃도 구름도 강물도
모두 색칠하는 선에 갇혀 있다.

엄마, 엄마, 크레파스가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아이의 상냥한 눈동자엔 겁이 흐른다.
온순하고 우아한 나의 아이는
책머리의 지시대로 종일 금 안에서만 칠한다.

내가 엄마가 아니라면
나, 이렇게 말해버리겠어
금을 뭉개버려라. 랄라. 선 밖으로 북북 칠해라.
살아있는 것이다. 랄라.
선 밖으로 꿈틀꿈틀 뭉게뭉게 꽃피어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랄라.

나 그토록 제도를 증오했건만
엄마는 제도다.
나를 묶었던 그것으로 너를 묶다니!
내가 그 여자이고 총독부다.
엄마를 죽여라! 랄라.

김승희